

# 선수잔치 끝...동호인 축제로 평화의 물결 '넘실'



2019광주FINA세계마스터스수영선수권대회

내달 5일~18일 84개국 5672명...5개 종목 열전

개회식 11일 남부대...대회기간 문화·예술 다채

2019광주FINA 세계선수권대회가 종료됐지만 광주가 수영 동호인들의 축제로 또 다시 평화의 물결이 넘실댄다.

광주세계수영대회조직위원회는 다음달 5일부터 18일까지 광주와 여수에서 2019광주FINA 세계마스터스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린다고 28일 밝혔다.

개회식은 11일 오후 7시30분 남부대학교 우정의동산, 폐회식은 18일 오후 7시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펼쳐진다.

세계 수영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마스터스대회는 84개국 1208개 클럽, 5672명이 참가 신청을 마쳤다. 한국은 110개 클럽 1034명이 이번 대회에 참가하며, 경연이 76개 클럽, 801명이다.

수영 동호인들의 축제는 5일부터 시작되는 아티스틱스위밍(염주실내체육관)을 비롯해 박진감 넘치는 다이빙, 볼복의 유일한 구기종목 수구,

가장 많은 참가규모의 경영(이상 남부대국제수영장), 물위의 마라톤 오 픈워터(여수) 등 총 5개 종목에서 나라와 클럽, 개인의 명예를 걸고 기량을 펼친다.

선수권대회에서 가장 인기있는 종목이었던 하다이빙은 위험성이 높아 제외됐다.

동호인들이 가족과 동반할 경우 1만여명 이상이 동시에 지역을 찾을 것으로 보여 조직위는 평화와 인권의 도시를 부각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11일 열리는 개회식은 대회에 참여한 수영 동호인들이 어울릴 수 있도록 평화를 상징하는 각종 문화공연이 펼쳐진다.

광주의 민심을 느낄 수 있는 전통 시장에서는 다음달 18일까지 문화에

술이 접목된 축제가 열린다.

대인시장에서는 매주 금·토요일 문화와 예술을 접목한 '대인예술야시장'이 선보이며 남광주시장에서는 기차역의 낭만이 함께 하는 '남광주 밤기차 야시장'이 진행된다.

1913송정역시장에서는 매주 토요일 맥주축제, 봉선시장에서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달뜨는 달달한 봉선' 행사가 열린다.

광주의 대표 길거리 공연축제로 자리잡은 '광주프리마켓페스티벌'은 다음달 1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18 민주광장 일대에서 열린다.

광주 국악 상설공연도 '공연마루'에서 창극, 한국무용, 국악관현악, 풍물놀이, 퓨전국악 등을 선보인다.

광주시립미술관에서는 광주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맛있는 미술관' 전



이 9월6일까지 진행된다. 이용실 광주시장은 "선수권대회 는 전문 선수들의 기량을 볼 수 있는

대회이지만 마스터스는 동호인들이 수영을 통해 하나되는 축제의 장이다"라며 "동호인과 가족들이 즐겁고

유쾌한 기억을 갖고 고국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다양하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 "그들이 있어 빛났다" 화제의 인물들

'그들이 있어 행복했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각국 선수단부터 대회 관계자, 자원봉사자, 시민리포터즈, 일반시민까지 대회 성공을 위한 숨은 주역들의 활약이 이번 대회를 더욱 빛나게 했다.

개막과 동시에 열린 다이빙경기에서는 청량하고 경쾌한 목소리의 장내 아나운서가 관람객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주인공은 존 메이슨(John Mason·호주). 그는 경기가 열리기 전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선수 소개, 경기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며 대회를 밝고 경쾌하게 만들었다.

마스코트인 수리와 달이 인형탈을 쓴 김정현(33), 문태환(24)씨도 경기장의 들뜬 분위기를 더욱 흥겹게 만들었다. 특히 이들은 10여 년 줄을 묶은 전문 댄스 출신으로 BTS의 아이돌이나 마크 로슨의 업타운핑크와 같은 신나는 음악의 춤을 미리 준비해 '춤 잘 추는 수리·달이'로 관람객 인기를 한몸에 받아 화제가 됐다.

평소 볼 수 없던 모습으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끈 주인공으로 '수구볼보

전 세계를 감동시켰다. 바다 위 마라톤'으로 불리는 오픈워터 경기에서는 비록 꼴찌로 들어왔지만, 포기하지 않은 투혼의 완주를 펼쳐 동료선수들은 물론 경기를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은 선수가 있었다.

아프리카의 작은 섬 세이셸제도의 알라인 비돔(Alain Vido)은 오픈워터 10km에 최연소(15세) 선수로 참가해 출전선수 74명 중 73번째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한지 10여분이 더 지난 뒤 끝까지 두 팔을 내저으며 완주에 성공해 볼복의 스포츠정신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숨은 곳에서 활약을 펼쳐 화제가 된 이들도 있다. 선수촌내 이·미용실 봉역 자원봉사자인 김한나(23)씨는 이 곳을 찾은 선수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남도사람의 정을 보여줬다. 다이빙심판위원회 전정민(61) 위원장과 전정욱(63) 봉역 자매도 이번 대회 의 숨은 조력자다. 다이빙 볼모지와 다름없는 대한민국에서

장내 아나운서부터 수리·달이 인형탈, 수구 볼보이 소규모 참가국 선수들 '아름다운 도전'에 감동물결

이'를 뽐낼 수 없다. 축구나 야구, 테니스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볼보이와 달리 아웃된 공을 가져오기 위해 한 경기에 수 십번 볼 속으로 뛰어드는 모습은 생소한 광경으로 관심을 모았다.

대회가 진행되면서 '아름다운 도전' 도 여기저기서 감동을 전했다.

인구수 5만6300여 명의 작은 섬나라 세이셸키츠네비스의 유일한 수영 선수인 제니퍼 하딩 말린은 올림픽 출전자격을 획득, 조국의 수영 저변을 확대한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광주를 찾았다. 특히 제니퍼 선수는 이번 대회에 전담코치로 어머니인 린 하딩과 함께 해 더욱 화제가 됐다.

국제수영연맹(FINA) 독립선수 자격으로, 자국의 국가가 아닌 FINA 로고가 새겨진 수영모를 쓰고 참가한 시리아 난민 출신 유스라 마르디니(Yusra Mardini)와 라미 아니스(Rami Anis)도 결선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예선에서 보여준 강한 의지는

국내에서 처음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는 수많은 해외 수영 스타들이 다양한 사연을 남겼다.

케일럽 드레슬(23·미국)은 절정의 기량으로 명성을 입증했다. 2년 전 부다페스트 대회에서 7관왕에 오르며 마이클 펠프스(34·미국·은퇴)를 이 '황제'로 등극한 드레슬은 이번 대회에서도 무려 6개의 금메달(27일)을 목에 걸었다.

페막을 하루 앞둔 27일에는 2시간 안 돼 금메달 3개를 수확했다. 남자 자유형 50m 결승에서 21초04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으며 2연패에 성공하다니 점영 100m 결승도 1위로 끝냈다. 기록은 49초66. 2위 안드레이 미나코프(러시아·50초83)에게 1초17 앞선 압도적인 레이스였다. 동료들과 함께 한 혼성 계영 400m에서도 미국 대표팀의 첫 번째 여자 조력자의 힘이 컸다.

## 김서영 "도쿄올림픽 위한 예방주사라 생각"

개인혼영 400m 10위로 예선 탈락... "생각보다 기록 괜찮아 조금 만족"



"2020년 도쿄올림픽으로 가는 과정에서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생각해요.

보완점을 빨리 고치고 싶어요." 안방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낸 김서영(25·경북도청·우리금융그룹)이 도쿄올림픽에서 아쉬움을 풀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김서영은 28일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사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 개인혼영 400m 예선에서 4분40초56를 기록했다. 1조 4위를 차지한 김서영은 총 26명 중 10위에 그쳐 상위 8명에게 주어지는 결승행 티켓을 손에 넣지 못했다. 기록도 아쉬웠다. 자신이 2017년 작성한 한국기록(4분35초93)에도 5초 가까이 뒤졌다.

한국 여자 경영 선수 최초 세계선수권대회 메달 획득의 꿈도 볼거품이 됐다. 김서영은 주종목인 개인혼영 200m에서 결승까지 올랐으나 2분10초12의 부진한 기록으로 6위에 머물렀다. 김서영의 최고 기록이자 한국기록은 2분08초34다.

대회를 모두 마친 김서영은 "우리나라에서 열린 대회라 나도 잘하고 싶은 마음과 욕심이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다"며 "우리나라에서 세계선수권대회를 치른 것도 큰 경험이 됐다. 과정과 결과 모두 큰 교훈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혼영 200m 뿐 아니라 400m도 좋은 기록이 아니다. 이런 결과에 좌절하는 것보다 보완점을 빨리 고치고 싶다"며 앞으로의 각오를

## '황제' 드레슬·'신성' 티트머스·'망신' 쑨양



로 해염저 초반 1위를 이끄며 3분19초40의 세계기록과 금메달에 일조했다.

앞서 점수했던 점영 50m, 계영 400m, 자유형 100m를 포함한 6관왕으로 이번 대회 강력한 최우수선수(MVP) 후보로 떠올랐다. 남자 점영 100m 준결승에서는 49초50으로 펠프스가 10년 간 보유하던 세계기록을 갈아치웠다.

드레슬이 왕좌를 지켰다면 헝가리의 크리스토프 밀락(19)은 이번 대회를 통해 확실히 발돋움한 경우다. 밀락이 강한 인상을 남긴 종목은

점영 200m다. 밀락은 결승에서 1분50초73을 기록해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1분51초대의 벽을 깬 최초의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밀락 역시 드레슬과 마찬가지로 펠프스의 아성을 넘어섰다. 1분51초51이라는 펠프스의 10년 묵은 기록을 0.78초나 줄였다. 2년 전 만 17세로 1분53초79의 당시 세계주니어기록을 찍었던 밀락은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며 세계무대를 접수했다.

또한 2008년 바르셀로나 대회 때만 18세로 챔피언에 오른 펠프스에 이어 16년 만의 이 종목 10대 챔피언이 됐다.

밀락은 "레이스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1분50초73이라는 기록을 본 뒤 모든 압박과 긴장이 사라지고 기쁨이 불려왔다"고 감격스러워했다.

### 드레슬, 절정의 기량으로 이번 대회 6개 금메달 목에 걸어 밀락, 점영 200m 1분51초대 벽 깨...16만의 10대 챔피언 레데키 독주 제동 건 티트머스·약물 논란 쑨양 2연패

여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는 아리안 티트머스(19·호주)가 케티 레데키(22·미국)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티트머스는 50m 남기고 레데키에게 0.62초차로 밀렸지만 무서운 스피드 능력을 자랑하며 승부를 뒤집었다.

티트머스의 최종 기록은 3분58초

76으로 3분59초97의 레데키보다 1초21이나 앞섰다. 50m에서 레데키보다 1.83초나 빨리 질주한 셈이다. 티트머스는 "레데키는 여자 자유형 중거리 선수들이 꿈꾸는 것을 하고 있다. 내가 꿈꿔오던 것을 해내서 너무 기쁘다"면서 "야마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레데키는 최고의 몸 상태를 만들어올 것이다. 다시 레이스를 펼칠 것이 기대된다"며 겸손한 소감을 남겼다.

중국 쑨양(28)은 남자 자유형 400m 최초의 4연패라는 대업을 이뤘다. 자유형 200m에서 금메달을 보태 2관왕에 올랐다.

하지만 그가 주목을 끈 것은 성적이 아닌 약물 논란이었다. 2014년 5월 중국반도핑기구(CHINADA)가 실시한 도핑 테스트에서 트리메타지딘(Trimetazidine) 양성 반응을 보여 3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던 쑨양은 지난해 다시 한 번 사고를 쳤다. 지난해 9월 도핑 검사관이 집을 방문했을 때 열액이 담긴 컵을 망치로 훼손해 테스트를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동료 선수들은 쑨양과 그의 출전을 막지 않은 국제수영연맹(FINA)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이른바 '쑨양 패싱'을 선보였다. 맥 호튼(호주 자유형 400m 은메달)과 단컨 스콧(영국 자유형 200m 동메달)은 금메달을 따낸 쑨양과의 악수와 기념 촬영을 거부했다.

티트머스의 최종 기록은 3분58초